

가상의 기니전…날카로운 창·불안한 방패

세네갈과 마지막 평가전 2-2 무승부

조영욱·백승호 골…막강 공격력 재확인
세트피스 상향선 잇단 실점…수비 불안
신태용 감독 “전력노출 우려해 감춘 것”



전력노출을 우려해 준비한 것을 100% 다 보여주진 않았다. ‘가상의 기니’를 상대로 막강한 공격력은 또 한 번 입증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잇단 실점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결전이 임박한 가운데 소극과 속세를 모두 확인한 한판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막을 목전에 둔 U-20 대표팀이 최종 리허설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2-2로 마쳤다.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을 기니와의 U-20 월드컵 개막전에 대비한 세네갈전에서 2골을 뽑으며 완성도 높은 공격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지만, 수비불안에 따른 아쉬움 또한 남겼다.

조영욱(고려대)을 최전방에 세우고 이승우와 백승호(이상 FC바르셀로나)를 좌우 날개로 배치하는 등 베스트11로 세네갈을 상대한 한국은 전반 18분 조영욱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이승우의 패스를 쫓아 쇄도하던 조영욱은 세네갈 골키퍼가 걷어낸 볼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흐르자, 이를 다시 침착하게 빈 골문으로 차 넣었다. 경기 시작 이후 매끄럽지 못했던 초반 흐름을 되돌리는 선제골이었다.

우월한 신체조건에 아프리카 특유의 탄력과 개인기를 조화시킨 세네갈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31분 이르하리마 니안에게 헤딩 동점골을 허용했다. 위험지역에서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며 내준 프리킥이 빌미가 됐다.

동점 상황을 깬 주인공은 백승호였다. 전반 36분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조영욱의 패스를 받은 백승호는 상대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출렁였다. 세네갈 골키퍼가 슈팅방향을 읽었지만, 미처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골문 왼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8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공개 연습경기에서 1골·1도움을 올렸던 백승호는 다시 한 번 A대표 못지않은 기량을 과시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한국의 2-1 승리로 끝날 듯하던 경기는 후반 40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네갈 솔라이에 사르가 코너리 상황에서 헤딩 동점골을 터트렸다. 한국 수비진은 자리를 지키다 멍하니 골문으로 들어가는 동점골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U-20 대표팀은 이로써 21명 최종 엔트리가 확정된 이후 치른 3차례 공식·비공식 평가전



U-20 대표팀 이상현(13번)이 1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세네갈과의 평가전 도중 상대 문전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세네갈에 세트피스로만 2골을 허용하며 2-2로 비겼다. 고양 | 뉴스1

(8일 사우디아라비아전 3-1 승·11일 우루과이전 2-0 승)을 2승1무로 마감했다. 3경기에서 총 7골을 뽑아내며 공격력에선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수비에는 의문부호가 달렸다. 세네갈전 실점에 대해 신 감독은 “일부러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도 감춘 게 많았다”고 설명했지만, 세

네갈 조셉 코토 감독이 지적했듯 공간허용에 대한 문제점은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양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신태용호, 주전경쟁은 끝까지 간다

세네갈전, 전술 바뀌며 선수들 체크
“결전 당일까지 경쟁”…부상 경계령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팀의 골격이 완성된 포르투갈 동계전지훈련부터 실전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마련된 3월 ‘아디다스 4개국 대회’ 출전, 최종 엔트리(21명)를 추리고 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4월 강화훈련, 대회 본선을 겨냥한 5월 강화훈련까지 분주한 레이스였다.

실전 리허설도 마무리됐다. 11일 청주에서 치른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14일 고양에서 벌어진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통해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했다.

20일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까지 이제 닷새가 남았다. U-20 대표팀은 기니(20일), 아르헨티나(23일)와 맞설 대회 조별리그 1·2차전이 열릴 전주로 16일 이동한다. 전주에서 2경기를 펼치고,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잉글랜드와 조별리그 3차전을 벌인다. 최대 조 3위까지 16강에 오를 수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기니와의 첫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네갈과의 평가전은 몹시 소중했다. 아프리카 팀들은 유럽과 남미에 비해 전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석이 어렵다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국가를 깔고려워 한다. A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과 U-23 대표팀이 나서는 올림픽

2017년 U-20 대표팀 공식경기 성적					조별리그(A조) 한국 일정		
날짜	구분	상대	장소	결과	득점자	일시	상대(대륙)
1.25	친선경기	포르투갈	리스본	1-1 무	조영욱	5월 20일 오후 8시	기니(아프리카)
3.25	아디다스	온두라스	수원	3-2 승	정태욱, 김승우, 백승호	5월 23일 오후 8시	아르헨티나(남미)
3.27	4개국 대회	잠비아	천안	4-1 승	이승우(2골), 백승호, 임민혁	5월 26일 오후 8시	잉글랜드(유럽)
3.30		에콰도르	서귀포	0-2 패		※16강전 5.30~31 8강전 6.4~5 4강전 6.8 결승 또는 3·4위전 6.11	
5.11	친선경기	우루과이	청주	2-0 승	이승우, 김지훈		
5.14	친선경기	세네갈	고양	2-2 무	조영욱, 백승호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한국도 아프리카 국가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빠른 템포와 리듬, 개인기와 탄력을 갖춘 세네갈은 ‘가상의 기니’였다. 본선 출전식을 겸한 평가전 시기도 적절했다. 세네갈을 마지막 스파링 파트너로 잡은 덕에 실전감각을 유지한 채 기니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노출은 피했다. 4-2-3-1을 주 포메이션으로 삼은 ‘신태용호’는 우루과이전처럼 ‘점점’에 주력했다. ‘포어-리베로’를 내세운 쓰리백과 포

백을 혼용했고, 수시로 전력을 바꿔가며 선수들의 능력을 확인했다. 에이스의 상징인 10번 이승우(FC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나머지 20명(골키퍼 3명 포함)의 등번호는 모두 바꿨다.

U-20 대표팀 스태프는 “마지막까지 경쟁이다. 3월 4개국 친선대회에서 주전으로 뛰다가 지금은 백업으로 밀린 경우도 있다. 결전 당일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선의의 경쟁을 하되, 앞으로는 부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U-20 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평가전 도중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신 감독은 최근 3차례의 공식·비공식 평가전을 포함한 준비과정에 만족감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양 | 뉴스1

모의고사 끝낸 신태용 감독

“평가전 무패, 본선경쟁력 충분 8강 간다면 우승까지 노리겠다”

모든 모의고사를 마쳤다.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1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평가전(2-2 무)을 끝으로 20일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 출전한다. U-20 대표팀은 8일 비공개 연습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3-1로 꺾은 뒤 11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선 2-0으로 이겼다. U-20 월드컵 출전식을 겸해 펼쳐진 세네갈전에선 비록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무패의 흐름을 이어가며 자신감을 높였다.

신 감독의 표정도 밝았다. 그는 “큰 부상 없이 잘 준비했다. 본선 경쟁력은 충분하다. 높은 순위로 16강에 오르면 8강 이후부터는 모두 우승 후보다. 1차 목표(8강)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U-20 대표팀은 16일 전주로 이동해 기니와의 개막전(20일)과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A조) 2차전(23일)에 대비한다. 다음은 세네갈전을 마친 뒤 신 감독과의 일문일답.

-쓰리백과 포백을 병행 중인데.

“경기 중 혼용할 생각이다. 많은 부분을 숨기려고 했다. 세트피스로 2실점했지만, 우리의 전략을 노출하지 않았다. 수비 패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훈련시간과 평가전 시간이 달라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개의치 않는다. 큰 폭의 기복과 쓰리백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원 라인이 자주 바뀐다.

“(미드필드 진용을 주전 위주로 정비해) 베스트 11의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본 대회는 조별리그만 3경기다.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중원은 약간의 혼선이 왔지만 이미 구성은 끝났다. 다만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염두에 뒀다.”

-전방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승우, 백승호 등 최전방의 3명은 어차피 잃었다. 일부 진용은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 본선에서 큰 로테이션은 없을 것이다.”

-세네갈은 ‘가상의 기니’였다.

“기니는 높이와 세트피스가 강한데, 이에 대비해 우리가 대비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다. 감출 부분을 감춰야 했다.”

-모든 대륙의 팀들과 두루 실전을 치렀다.

“(3월 아디다스) 4개국 대회부터 자신감이 붙었다. 내용도 좋았다. 우리가 원한 패턴 플레이도 잘 나온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우리의 축구를 하고 있다. 자만이 아닌, 자신감으로 준비하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리라고 본다.”

고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한국수비진 공간허용 많아”

●세네갈 U-20 대표팀 조셉 코토 감독=지금의 흐름이라면 본선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다. (양국이 1-1로 비긴 지난해 9월 가타르 4개국 친선대회보다) 경합이 많이 썰었다. 한국은 공중볼 경합에서 특히 실력이 좋아졌다. 두 팀 모두 실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최종 모의고사를 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국 수비진의 공간허용이 많은 점은 보완해야 한다. 한국은 기니보다 낫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정몽규 대한축구협회회장이 1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세네갈의 U-20 대표팀 평가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고양 | 뉴스1

정몽규 회장 “2030년 한·중·일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2번째 도전끝에 FIFA 평의회 위원 입성

“2030년 한·중·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

2번째 도전 끝에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에 당선된 정몽규(55) 대한축구협회장이 한국, 중국, 일본에 가능하다면 북한까지 참여하는 2030년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1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20세 이하(U-20) 대표팀과 세네갈의 평가전에 앞서 “FIFA도 2개국 이상, 많게는 3~4개국이 함께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긴밀한 대화를 나눈다면 2030년 월드컵 공동개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준비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 임기 중에 아시안컵과 컨페데레이션컵 중 하나는 꼭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친 정 회장은 자신의 평의회 위원 당선과 관련해선 “(무투표로 당선돼) 결과적으로는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다”며 “앞으로 한국축구는 물론 아시아, 세계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일본 응원단의 ‘전병기’ 응원(4월 25일 수원삼성-가와사키 프론탈레전)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아시아의 많은 국가

들이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한 정 회장은 “전병기를 활용한 응원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도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조직위원장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방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리를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 회장은 8일 바레인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2년 임기의 FIFA 평의회 위원에 당선됐고, AFC 부회장으로도 정식 선임됐다.

고양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